

KBO출신 한국인 타자 ML 도전기



박병호

김현수

황재균

강정호·박병호 포스팅 성공
2015년 황재균 스플릿 계약
김현수 FA로 메이저리그행

두산 베어스 김재환(31)의 메이저리그 도전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두산은 5일 구단 공식발표를 통해 팀 4번타자 김재환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공식 요청 소식을 알렸다. 김재환은 지난 11월에 열린 프리미어12 대회에서 대표팀이 2020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됐다.

한국인 타자가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것은 4년 만이다. 2015시즌이 끝난 뒤 당시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던 손아섭(31)과 황재균(32)이 빅리그 도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구단의 반응은 차가웠다. 단 1건의 입찰도 없었다. 황재균은 1년 뒤 프리에이전트(F.A) 자격으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스플릿(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소속에 따라 연봉 차이를 두는 계약) 계약에 성공했다.

LG 트윈스 김현수(31)는 2015시즌이 끝난 후 FA신분으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했다. 2017년 필라델피아 필리스 소속으로 빅리그 도전을 마쳤는데, 두 시즌 동안 타율 0.273, 7홈런, 36타점, 56득점의 기록을 남겼다. 국내 최고의 타자가 남긴 성적으로는 분명 아쉬움이 있었다.

박병호(33)는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경우다. 2015시즌 종료 후 1285만 달러의 입찰액을 쓴 미네소타 트윈스와 4년 1200만 달러 짜리 계약을 맺었다. 2016년 빅리그에서 홈런 12개를 기록했지만 타격 슬럼프로 2017년 트리플A에만 머물자 이듬해 국내로 복귀했다. 마무리가 쓸쓸했지만 계약조건만큼은 국내 타자들 중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았다.

강정호(32)는 2014시즌이 끝난 후 역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빅리그로 데뷔했다. 500만 2015달러를 써낸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4년 1600만 달러에 계약했고, 현재까지 KBO출신 한국인 타자 중에서 가장 돈보이는 메이저리그 활약을 펼쳤다. 4시즌 동안 타율 0.254, 46홈런, 144타점, 120득점을 마크했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겨울왕국2’ 이번 주말 1000만 돌파…2014년 1편 보다 빠른 흥행의 의미

애니메이션 첫 ‘쌍천 만’…명품시리즈의 탄생

〈1·2편 모두 1000만 관객 돌파〉

어벤져스·신과함께 시리즈에 이어 세번째 1000만 재현…3편 기대감도 비판 직면한 독과점, 풀어야할 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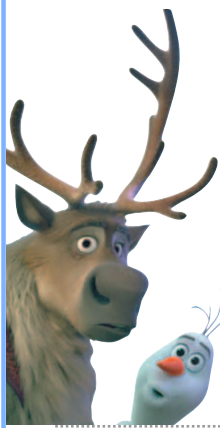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맹렬한 흥행세를 이어가며 ‘1000만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4년 1편에 이어 2편까지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어벤져스’와 ‘신과함께’처럼 시리즈 영화로서 또 다른 흥행 기록을 쓰게 됐다.

●1편을 뛰어넘는 흥행 기세

5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 따르면 ‘겨울왕국2’는 4일 현재까지 전국 1557개 스크린에서 누적 916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평일 평균 18만여 명, 주말 하루 10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토요일인 7일 10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겨울왕국2’는 11월21일 개봉 이후 17일 만에 ‘1000만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이는 2014년 1월16일 개봉해 46일 만에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1편보다 훨씬 빠른 흥행 속도이다. 이에 힘입어 ‘겨울왕국2’는 1편의 1029만 관객 기록도 뛰어넘을 전망이다. 또 그 최종 흥행 수치가 어디까지 가닿을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겨울왕국’은 애니메이션 시리즈 최초로 ‘쌍천 만’ 기록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시리즈 영화로서 연이어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것은 2015년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시작으로 2018년 ‘인피니티 워’, 올해 ‘엔드게임’까지 흥행력을 과시한 ‘어벤져스’ 시리즈가 있다. 한국영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이번 주말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전망이다. 아렌달 왕국의 엘사·안나 자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는 2014년 1편에 이어 ‘1000만 클럽’에 가입하면서 ‘명품 프랜차이즈’ 영화의 힘을 과시하게 됐다.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로는 김용화 감독이 연출해 2017년 선보인 ‘죄와 벌’과 지난해 ‘인고 연’으로 이어진 ‘신과함께’ 시리즈가 관련 기록을 썼다.

●더욱 깊어진 이야기, 3편까지?

이에 따라서 ‘겨울왕국’ 시리즈는 ‘명품 프랜차이즈’ 영화의 힘을 과시하며 3편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2편은 더욱 성숙해진 엘사·안나 자매가 운명의 비밀을 찾아가며 앞길을 개척해가는 이야기를 통해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의 매력을 안겨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가족애의 진한 감성으로 폭넓은 관객층의 지지를 받으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구현해낸 화려한 영상미의 시각적 재미까지 답이었다. 이 같은 진화를 통해 향후 또 다시 새로운 캐릭터와 이야기를 관객에게 선사할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연출자 제니퍼 리 감독은 “지금쯤은 전혀 모르겠다”면서도 “1편과 2편을 기획했을 때 하나의 여정으로 함께 묶어 생각했다. 그 여정에 맞춰 달려왔다. 찬찬히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또 다시 스크린 독과점 논란

‘겨울왕국2’의 이 같은 흥행세 이면에서는 상영 독과점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영점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최고 80%대의 높은 수치로 전국 상영관의 스크린을 장악하며 관련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한국영화계의 비판을 받았고,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배급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한 한국영화 관계자는 “상영 및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둘러싼 고질적인 논란과 관련해 이제 매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렛 잇 고’ 안부러운 엘사의 주제곡 ‘인투 더 언노운’

흥행과 맞물려 갈수록 인기폭발 국내 8개 음원 사이트 톱10 포진 최고 순위 3위, ‘렛 잇 고’에 앞서

‘겨울왕국2’가 OST로도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애니메이션이 1000만 관객 돌파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주제곡을 포함해 OST 수록곡까지 인기를 얻고 있다.

극중 엘사의 주제곡인 ‘인투 더 언노운(I

nto the Unknown)’이 5일 현재 국내 8개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에 3위에서 7위까지 10위권 안에 고루 포진해있다. 극중 엘사의 목소리를 연기한 뮤지컬 배우 이디나 멘젤과 노르웨이 가수 오로라가 함께 부른 곡으로, 이들의 신비한 음색이 특징이다. ‘아~ 아~ 아~’라고 시작하는 도입부가 중독성이 강해 귀에 쏙힌다는 평가다.

사실 이 곡은 지난달 16일 국내에 처음 공개됐을 때엔 이렇다할 관심을 끌지 못했다. 영화가 21일 개봉한 직후에도 양상은

비슷했다. 주제곡을 먼저 접하거나 애니메이션과 함께 곡을 들은 관객도 2014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시즌1의 주제곡 ‘렛 잇 고’보다 “폭발력이 떨어진다”, “스토리에 비해 음악이 아쉽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렛 잇 고’ 못지않은 관심을 끌기 시작하더니 음원차트까지 점령했다. ‘렛 잇 고’처럼 따라 부르기 쉽지 않지만 계속 여운이 남는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인투 더 언노운’이 ‘렛

잇 고’보다 최고 음원 순위 역시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다.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음악사이트 멜론의 실시간 차트에 따르면 ‘인투 더 언노운’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5위를 차지했다. 최고 순위는 이달 1일 기록한 3위다. 앞서 ‘렛 잇 고’는 2013년 12월2일 공개된 후 톱100에 진입해 이듬해 2월8일 9위까지 올랐다. 당시 국내 10대 팬들은 물론 인기가수들까지 ‘커버’ 따라 부른 것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더 이상 순위는 오르지 못했다.

‘인투 더 언노운’ 외에도 ‘쇼 유어세프’, ‘섬 텀스 네버 체인지’, ‘울 이즈 파운드’ 등 4곡도 100위권 안에 올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에이스 린드블럼·4번타자 김재환 이탈…두산의 플랜 B는?

두산 KS 우승 이끈 투·타 핵심 전력 김태형 감독, 페르난데스 대안 언급

다펜딩챔피언 두산 베어스의 스토브리그는 험난하다. 4일 2년간 35승을 거둔 에이스 조쉬 린드블럼과 작별했고, 5일에는 메이저리그(MLB) 도전 의사를 밝힌 4번타자 김재환에 대한 포스팅(경쟁입찰)을 요청했다. 미국진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팀 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수다.

린드블럼은 지난해 30경기에서 20승3패, 평균자책점 2.50, 189삼진을 기록하며 다승, 삼진, 승률(0.870) 부문 3관왕을 차지한



페르난데스

에이스다. 김재환은 주전으로 발돋움한 첫 해인 2016시즌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5홈런, 110타점 이상을 기록한 거포다. 투타의 핵심전력을 모두 잃을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두산 김태형 감독은 애써 밝은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고민이 아예 없을 순 없다”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재환의 거취가 최종 확정된 뒤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지금부터 고민하진 않겠다”고 운을 뗀 김 감독은 “4번타자가 빠져나간다면 감독 입장에서 고민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남아있는 선수들로 타선을 잘 꾸려야 한다”고 밝혔

다. 린드블럼의 이탈에 대해서도 “MLB 원터미팅 이후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빨리 대체를 세우는 게 맞다”고 밝혔다.

확실한 홈런타자가 라인업에 포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다. 라인업의 무게감부터 달라진다. 김 감독이 지난해 최다안타 부문 타이틀을 거머쥔 호세 마구엘 페르난데스(197안타)를 언급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김 감독은 “외국인타자도 기존의 페르난데스가 워낙 잘해줬지만, 파워히터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상황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이 발굴한 4번타자에 대한 애정도 잊지 않았다. 김 감독은 “김재환이 MLB에 진출한다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게 관건이다. 가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